

농촌관광문화의 성립과 지속가능한 관광:  
‘벚가리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승유 · 노지원 · 이주홍

# 목 차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과 조사과정
3. 연구대상지 개관
  - 1) 인문·지리적 환경
  - 2) 생업

## II. 체험마을 ‘벚가리 마을’의 생성과 지역 주민

1. 체험마을 ‘벚가리 마을’의 생성과정
  - 1) 벚가릿대 세우기
  - 2) 주민 교육
  - 3) 기타 프로그램
2. ‘벚가리 마을’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효과
  - 1) 경제적 이윤 창출
  - 2)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 III. ‘벚가리 마을’에서 나타나는 농촌성의 변화

1. 농촌성의 개념
2. ‘벚가리 마을’을 통해 본 변화하는 농촌성의 이미지
  - 1)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제공되는 농촌성의 이미지
  - 2)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농촌성의 이미지
  - 3) ‘벚가리 마을’을 통해 본 농촌성의 특징과 변화

## IV. 결론 - 농촌관광마을의 올바른 성립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 참고문헌

※ 부록: 제보자 명단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최근까지 한국의 농촌은 농업의 쇠퇴, 이농에 따른 인구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老齡化), 과소화(過疎化)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로를 통해 그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농촌관광개발’이다. 특히 최근에는 초창기 관광산업적 개발중심의 농촌관광개발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환경·문화·체험·만남 등을 소재로 하는 종합적 의미의 ‘농촌관광’을 구상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하여 농림부·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농촌관광’은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더 탄력적으로 운영·지원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맞춰 학계에서도 농촌관광마을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관광학이나 관광경영학 분야에서는 농촌 체험관광의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sup>2)</sup>가 주를 이루어 온 반면, 문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는 농촌체험관광의 문화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에서는 ‘관광문화’는 보여주기 위한 문화, 또는 기존의 문화를 왜곡하고 변질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관광문화’는 원형의 또는 본래의 지역문화와는 다른 의미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광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선택적으로 재구성되고, 연출되며, 새로운 형태로 창출되는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선택되고 재구성된 관광문화의 주체인 지역 주민과 그것을 사는 관광객 사이에 형성되는 권력관계로 인해 기존 문화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관광객에 의해 ‘타자화’(他者化) 된다는 것이 앞서 말한 그동안의 연구경향<sup>3)</sup>이라 할

1)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 하여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850여 곳의 마을을 관광화 시킬 방침이며, 문화관광부는 ‘문화역사마을’, 행정자치부는 ‘아름마을 가꾸기’, 농촌진흥청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은 ‘산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벚거리 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속한다.

2) 연구경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자면, 농어촌지역 활성화 전략과 방안 연구, 그린 투어리즘과 관광개발에 관한 정책적 제안, 그린 투어리즘과 관광개발의 성공사례 연구, 관광개발의 사업추진 실태 분석과 평가모델 제안, 관광동기와 관광화의 영향 연구 등의 성과를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한 연구는 본질주의적 비판론을 토대로 한 관점으로 대부분 문화의 진정성(authenticity)을 논하는 연구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그동안 민속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규호, 「관광의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지역관광개발의 영향」,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 연구소, 2000.

김명자·이상열 「문화관광정책을 통해 본 민속의 위상」,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배영동, 「박물관 관광의 의미와 역사·문화의 탐색적 이해」,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이상현, 「민속학자의 교양여행 전통과 문화관광」,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이창식, 『문학·공학과 민속학』, 대선, 2000.

수 있다.<sup>4)</sup>

본고에서 사례로 제시할 농촌전통테마마을인 ‘벚가리 마을’도 이러한 그동안의 연구관점에서 본다면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벚가리 마을’ 역시 자신들의 문화를 관광화하면서 재구성하고, 연출했으며, 조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체험마을을 관광을 위한 상품화된 문화로 보거나 타자화된 문화로 보기에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타자화된 문화로 본다는 것은 본래의 문화 주체인 지역 주민은 관광문화에 소외되어 문화가 객체화(objectification)<sup>5)</sup>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벚가리 마을’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의 객체화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타자화된 문화라기보다 자신들이 지닌 문화와 전통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문화의 객체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관광문화는 관광객<sup>7)</sup>들이 농촌에서 얻고자 하는 다양한 이미지에 맞추어 재구성된다. 농촌관광을 자연관광(nature tourism), 문화관광(culture tourism), 산업관광(industrial tourism), 역사관광(history tourism) 등과 구분해주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향하는 것 때문이다.<sup>8)</sup> 즉 농촌관광은 농촌을 체험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관광이 성립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수요는 단순히 소득 증대나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자동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9)</sup> 관광객이 농촌에 가서 체험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농촌에서 이미지화 되어 표현될 때 비로소

임재해, 「마을민속 왜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마을민속 전승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4.

조정현, 「민속연행예술의 신명체험 관광」,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표인주, 『남도민속과 축제』, 전남대학교 출판사, 2005.

한상일, 「지역문화요소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향」,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4) 문옥표, 「관광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하회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3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80~81쪽 참고.

5) 남근우는 문화인류학적인 입장에서 문화의 객체화에 대해 간단하게 “문화를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같은 의미로 민속학에서는 포클로리즘(folklorism)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민속의 창출과 발명, 개변과 응용, 관광자원화와 상품화, 정책적 활용과 정치적 이용 등과 같은 현대적 과제들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남근우, 「민속의 문화재화와 관광화: ‘강릉단오제’의 포클로리즘(folklorism)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3집, 2006, 208~209쪽’을 참조.

6) 이런 관점은 문화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최근 관광인류학·민속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시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서 제시한 국내의 사례의 경우, 대부분 문화의 객체화 과정에서 외부의 강한 개입으로 인해 생기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때문에 문화의 객체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가했을 때 나타나는 관광문화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7) 농촌관광마을은 도농간의 교류를 통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관광객은 도시민들이라고 한정 지을 수 있겠다.

8) 문옥표, 「한국 농촌사회의 특성과 농촌관광 개발: 일본과의 비교」, 『과학원예』 통권90호, 과학원예사, 2003. 140쪽.

9) 상게서, 같은 쪽.

관광객은 농촌을 찾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도시민들의 여가·경제생활의 향상만을 고려해 관광문화의 객체화와 농촌관광을 진행한 경우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벚가리 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를 통해 연간 수천·수만의 관광객이 꾸준히 마을을 찾고 있으며, 관광객들도 대부분 ‘벚가리 마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에 만족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문화의 객체화 과정이 관광객들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리에 위치한 ‘벚가리 마을’의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문화가 객체화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추적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체험마을화 하고자 했으며,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관광문화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또한 관광객이 ‘벚가리 마을’에서 요구하는 농촌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농촌성(rurality)을 알아보고, 나아가서 이러한 농촌관광마을이 올바르게 성립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과 조사과정

먼저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정기현지조사<sup>10)</sup>의 일환으로 19명의 학부생이 공동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이 정기현지조사에서는 민속학에서 바라보는 관광문화를 연구해보고자 모범적 체험마을로 평가받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군의 ‘벚가리 마을’을 기초사례조사지역으로 자체 선정하였다. 이후 조별 토의를 통해 4개의 세부 조를 구성하고 그에 맞는 세부 주제를 정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연구목적을 구체화하였다. 그 후 2007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한 참여관찰과 지역주민, 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정기현지조사 이후 주도적으로 현지조사에 참여했던 3명의 조사자가 본격적인 논문작성과 더불어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벚가리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에 조사자가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심층면접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벚가리 마을’의 주요 체험프로그램인 ‘벚가릿대 세우기’의 경우 본래 정월 보름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내용은 운영자와의 인터뷰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참여자들의 게시물을 참고하였다.

---

10) 중앙대학교 민속학과에서는 민속학의 주된 연구방법인 현지조사를 경험하고, 민속학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자 정기현장조사를 일 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학과의 규모 상 한 지역에 모든 인원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4~5개의 소조를 나누어 각 지도교수님과 조별 토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 3. 연구대상지 개관

#### 1) 인문·지리적 환경

‘벧가리 마을’이 위치한 태안군은 서해안의 태안반도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서산시, 서쪽으로는 서해, 남쪽으로는 보령군(寶寧郡)의 원산도(元山島)를 마주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경기도(京畿道)의 덕적군도(德積群島)를 바라보고 있다.

태안군은 동쪽만 서산시와 연륙되어 있을 뿐 나머지 3면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해안선이 무려 530.8km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크고 작은 섬들이 118개에 이르고 있다. 또 산으로 인한 만곡(彎曲)이 심하며 산악이 전체 면적의 54.5%나 차지하고 있어 평야는 적은 편이나 간척지(干拓地)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태안군 중에서도 ‘벧가리 마을’은 이원면 관리에 위치한다. 관리는 본래 이원면 소재지로서 관사가 있었다 하여 관사골·관골·관동 등으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외동리와 마방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관리라 지칭하였다. 이후 관리는 서산군 이북면에 편입되어 내려오다 1987년 1월 1일부로 이북면이 이원면으로 개칭(改稱)됨에 따라 서산군 이원면의 관할지가 되었는데, 그 뒤 1989년 1월 1일 태안군이 복군됨으로서 다시 태안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리는 반도인 이원면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서쪽과 동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있다. 관리에도 무인도인 우능도, 아랫지매도, 윗지매도, 주도의 4개 섬이 속해 있다.<sup>11)</sup> 현재 관리는 1·2·3리로 나뉘어 있는데, ‘벧가리 마을’은 관1리를 말하며, 인구는 총 115명으로 농가가 45가구, 비농가가 15가구이며 남자가 60명, 여자가 55명이다.<sup>12)</sup> ‘벧가리 마을’이란 이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된 이후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이름으로 본 논문에서는 관1리라는 행정구역명 대신 ‘벧가리 마을’로 서술하도록 한다.

11) 『泰安郡誌』, 1995, 3-15

12) 벧가리 마을 홈페이지 참조 (<http://byutgari.invil.org>)



그림 1 ‘벚가리 마을’ 지도 (‘벚가리 마을’ 홈페이지)

## 2) 생업

현재 ‘벚가리 마을’ 주민들의 생업은 주로 농업으로 경지면적은 논이 47ha, 밭이 35ha이며, 주요 작물은 벼·마늘·콩 등이다.<sup>13)</sup>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를 비롯한 이원면 일대에는 염전이 상당수 있었으나<sup>14)</sup> 대부분 농지로 개간했으며 1980년대에는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굴 양식을 시작하였다. 농업과 굴 양식을 동시에 하다 보니 염전, 굴양식과 같은 어업의 생업력이 농업의 생업력과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농한기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만약 굴의 채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리 때와 농번기가 겹치는 경우에는 농업에 힘을 쏟는데, 이는 농업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근 어촌 마을의 경우 대개 굴의 채취 및 정리 작업을 여성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업이 명확한 편이다. 이는 남성들이 갯벌 일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인데 ‘벚가리 마을’의 경우 1980년대 이전까지는 갯벌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금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마을의 경우 굴의 채취는 남성이, 정리는 여성이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후 2003년 ‘벚가리 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면서 생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생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인데, 총 60가구 중에서 47개 농가가 체험프로그램에서 일손을 돕고 있으며 24가구가 외지인들을 위하여 가정집을 이용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13) 벚가리 마을 홈페이지 참조 (<http://byutgari.invil.org>)

14) 『泰安郡誌』를 보면 1994년의 이원면의 염전 업체 수는 22개로 그 총면적은 637,557㎡가 된다. 생산량은 4,140톤이다.



그림 2 마을 입구에서 본 마을  
전경 (‘벚가리 마을’ 홈페이지)



그림 3 마을에 인접한 갯벌

## II. 체험마을 ‘벚가리 마을’의 생성과 지역주민

### 1. 체험 마을 ‘벚가리 마을’의 생성과정

농촌진흥청은 농촌자원의 가치 증진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한 97개 마을과 2007년 새로이 선정한 34개 마을을 포함해 현재 총 131개의 마을이 육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2009년까지 160여 개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에 있다.

농촌의 경제상황과 도시민들의 관광에 대한 수요증가를 생각할 때 농촌마을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은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농촌진흥청이 2006년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사업지원 후 3년째 되는 2004년도에 지원마을을 살펴본 결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찾은 방문객 수는 2004년 1만 3천여 명에서 2006년 6만 9천여 명으로 407% 증가하였다. 한편, 방문객의 민박·체험·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하여 얻어진 사업소득도 2004년 2억 6천 3백만 원에서 2006년 12억 8천 3백만 원으로 387% 증가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와 마을주민의 마을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벚가리 마을’ 역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당시 이장이었던 한원석 현 운영위원장의 주도로 ‘벚가리 마을’은 2002년도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을 받았다.<sup>15)</sup> 이를 토대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

15) 2003년 초,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 마을 자원조사와 현황 파악을 파악하여 대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그 후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태안군과 주민 참여로 이를 수정·보완하고 심의를 거친 후, 주테마를 비롯한 기타 프로그램들을 컨설팅 하였다.

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착수하였다. 프로그램은 이 마을에서 행해지던 세시풍속인 벚가릿대 세우기를 주 테마로 하고 생업·생태·전통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구분	내 용
주테마	벚가릿대 세우기 놀이
생업	천일염 만들기 체험, 농산물 수확(마늘·감자·콩)
생태	갯벌 체험(설계·고동·망둥이·쑥 잡기), 굴 체험, 동물 농장, 바다낚시, 야생화 관찰, 나물 캐기, 박 체험, 오리농군 보내기
전통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인절미·손두부·메주·엿·한과), 소원의 숲, 희망 솟대 세우기, 구멍 동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화 만들기, 연 만들기, 오쟁이 만들기& 부잣집 흙 퍼담기, 밥 훑쳐먹기

표 1 체험 프로그램 분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건물을 신축하고 마을 조경 사업도 실시하였다. 주요 기반시설의 조성 과정을 보면, 2003년 30평의 실내 체험학습관 건설을 시작으로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고 연중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마을 조경을 위해 박꽃길을 조성하고 초화류·화목류 등을 식재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촌전통테마마을로서의 ‘벚가리 마을’은 마을과 인접한 서울·경기 지방의 도시민을 타겟으로 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였다. 홍보는 온·오프라인 상으로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벚가리 마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체험객의 대부분이 초등학생 단체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홍보차원의 글을 올렸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와 KBS가 매년 주관하는 도농교류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오프라인홍보도 진행하였으며 이 밖에도 TV와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였다.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벚가리마을’의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고 농특산물 패키지 포장제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는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마을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벚가리 마을’의 로고<sup>16)</sup>가 그려진 종이박스·비닐포장지·메모지·

16) 로고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마을에서 원하는 이미지(벚가릿대, 산과 바다, 구멍바위)를 의뢰하여 대전에 위치한 우송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에게 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엽서·스티커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마을의 이미지 형성과 관련하여 벗가리 마을에서는 일부농산물(굴·마늘·쌀 등)과 관광숙박, 요식업 등 4개류에 ‘벗가리 마을’로 상표를 등록하였다.

‘벗가리 마을’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원활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과 마을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하였다. 초창기에는 타 체험 마을을 견학하기도 하였고 삼성전기의 후원으로 대한항공 스텔어디스 교육담당자에게 친절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 외에도 마을운영위원회와 체험행사의 실무 책임자인 노인회장이 태안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는 농어민 관광대학을 통해 체험마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협력적 관계구축과 도농상생(都農相生)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벗가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처음에는 9개였으나 현재까지 꾸준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은 3~4개정도이다.<sup>17)</sup>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삼성전기와의 자매결연으로 삼성전기와 ‘벗가리 마을’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토고미 마을까지 3자 결연을 맺어 워크샵 개최·특산물 교류·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벗가리 마을’은 2003년 6월 21일 개장 이후 2003년에는 2,550명을 대상으로 61회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04년에는 121회 6553명, 2005년에는 170회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521명의 체험객이 마을을 다녀갔으며 2006년에는 180회 11,35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가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생성과정 속에서 형성된 ‘벗가리 마을’에서 주요 테마인 벗가릿대 세우기와 주민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벗가릿대 세우기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전통사회에 있어서 농가에서는 연초에 한 해 농사의 풍흉을 미리 예측하는 의례가 많이 행해졌다. 농사의 풍흉은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벗가릿대 세우기 놀이’(이하 벗가릿대 세우기)는 이러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하기 위한 욕구의 소산물로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이나 보름에 벗가릿대를 세웠다가 이월 초하루에 눕히는 풍농기원의례이자 놀이이다. 여기서 계절적으로 이월 초하루는 해동(解冬)이 되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 이때 벗가릿대에 매달아 둔 오곡종자의 싹이 튼 것을 보고 풍흉을 미리 예측한다. 1934년에 송석하가 발표한 「풍신고(風神考) 부

17)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로는 노아쇼핑, 삼성전기, 태안해안경찰서,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세륜중학교, 남경종합건설, 청송식품, 토고미마을, KB자산운용이 있다. 학교의 경우 마을과 서로 물품을 지원하거나 특산물을 판매하고 태안해안경찰서의 경우 야간 강사를 보내어 마을 주민들의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附) 화간고(禾竿考)」에서 벧가릿대 농경의례는 한강 이남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입간민속(立竿民俗)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조사 자료에서 한강 이남 지역을 비롯한 충청 서북부지역과 전라도 진도 및 해남 일부 지역, 그리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벧가릿대 세우는 풍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보아 벧가릿대는 대개 한강이남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농경의례로 일제시대 때부터 소멸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벧가릿대 농경의례는 충청도 내포지역인 서산·당진·태안 일대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sup>18)</sup>

‘벧가리 마을’의 벧가릿대 세우기 역시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매년 음력 1월 15일에 행해지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정 이후로 여러 가지 변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70년 이전	1970년 이후~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정 전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정 후
시기	음1/15	음1/15	음1/15~음2/1
운영주체	각 마을의 주민	관리 노인회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관 1,2,3리 마을이 독자적으로 행함.	관1,2,3리 통합.	관1리 중심
참여자	각 마을 주민	관1,2,3리 주민	지역주민과 관광객
양상	음1/15 벧가릿대 세우기	음1/14 : 지신뵙기, 샘긋 음1/15 : 벧가릿대 세우기 음2/1 : 영등제	벧가릿대 형태 변화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표 2 벧가릿대 세우기의 변이 양상

태안군 이원면 관리에서는 벧가릿대 세우는 풍습이 전해오고 있었는데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관1·2·3리에서 각기 소규모로 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 당시 관2리 노인회장이었던 손을산(남, 1990년대에 작고)이 관1·2·3리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던 벧가릿대 세우기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집대화할 것을 제안했다.<sup>19)</sup>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벧가릿대 세우기는 관리 노인회 회원들이 모여 노인정(경로당)<sup>20)</sup> 마당에서 행하게 된다. 2000년도 경에는 각 리의 노인회가 분과되면

18) 이관호, 「벧가릿대고(禾竿考) -내포(內浦)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2.

19) 제보자 손인상(남, 71세), “그러니까 (벧가릿대 세우기를) 한 대여섯 사람 불러 갖고 그렇게 세워갖고 하던 거를 .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집대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관리 2구, 여기(아래)가 관리 경로정이었어요. 요 밑에가. 관리 경로정에서 집대화 시켜가지고, 행사를 해 가지고…….”

20) 당시에는 노인정이 없어 노인회장이었던 손을산의 방 한 칸을 노인정 대신으로 사용하였었는데 그 후에 지금의 관1리(‘벧가리 마을’)에 공동의 노인회관을 건축하였다.

서 노인회관 역시 각각 따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 해마다 돌아가면서 벗가릿대 세우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점차 관2·3리의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관1리의 주민들만 이를 행하게 되었고, 벗가릿대 세우기 놀이도 관1리, 즉 ‘벗가리 마을’에서만 시행하게 되었다.

벗가릿대 세우기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습이 변화하였는데, 대나무를 새끼줄 3개를 이용하여 삼각뿔 모양으로 지탱하는 방식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 다만 1970년대 이전에는 벗가릿대를 세우거나 쓰러트릴 때에 제의를 지내지는 않고 술만 올렸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손을산의 제안으로 관1·2·3리 주민들이 함께 벗가릿대를 세우게 되자 그 양상이 달라졌다. 벗가릿대를 세우는 정월 보름의 전날 밤에 풍물패가 마을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하고 무당이 샘(지금은 없어짐)에 가서 마을의 번영을 축원하는 샘굿을 하기 시작했다. 샘굿을 지낼 때 샘에 콩을 담은 주머니를 넣어놓고 2월 초하루에 꺼내어서 콩의 불은 정도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2월 초하루에는 벗가릿대를 쓰러트리면서 영등할머니에게 상을 차려 제의를 지내고 경꾼(경쟁이)을 불러 북과 장구를 치고 경을 읽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벗가릿대 꼭대기에 흰 천으로 만든 오곡주머니를 달아 팔·콩·참쌀·멥쌀·녹두를 넣어 두었다가 벗가릿대를 쓰러트릴 때 꺼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밥을 지어 먹었다. 영등할머니에게 차리는 상에는 팔시루떡, 돼지머리, 상어포, 삶은 닭고기, 직접 담은 술, 사과, 배, 밤, 대추 등을 놓았다.

현재 ‘벗가리 마을’에서 행해지는 벗가릿대 세우기는 그 형태나 시기 등에 있어서 또다시 여러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마을이 관광화됨에 따라 좀 더 형식을 갖추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벗가리 마을’이 2003년에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면서 벗가릿대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2월 초하루의 영등제의 모습도 변화하였고, 소규모의 가족벗가릿대 세우기 체험도 생겨났다. 벗가릿대의 대나무에 짚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벗가릿대를 지탱하는 새끼줄에도 짚과 색깔 있는 천을 늘어뜨렸다. 또 벗가릿대에 매다는 오곡주머니도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들었으며, 벗가릿대 꼭대기에 청솔가지를 매달았다. 이는 마을의 푸른 기상을 상징하기 위하여 매달게 되었다고 한다.<sup>21)</sup> 그리고 2월 초하루에 벗가릿대를 쓰러트릴 때 지내는 영등제도 제관복을 맞추어 입고 지내며 제의를 진행할 때도 체험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를 요약하여 읽고, 축문을 해석해 주기도 한다. 지방도 이전에는 종이로 써서 붙였다면 이제는 나무로 위패를 만들어 사용한다.

또한 벗가릿대 세우기가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편성되고 그 주체도 노인회에서

21) 제보자 손영철(남, 38세), “소나무는 항상 푸르니까 죽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마을의 푸르름을 소나무가지와 같이 변치 않는 기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로 세우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로 변화하였다. 물론 지금도 벧가릿대 세우기의 실질적인 진행은 노인회에서 담당하지만 참여자의 신청을 받거나 행사의 계획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벧가릿대 세우기의 모습 변화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노인회와 체험마을운영에 더 중점을 두는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벧가릿대 세우기는 원래 정월 보름날 하루만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체험객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월의 전후로 여러 번 세우기도 한다. 2006년에는 정월 보름이 양력으로 2월 12일 이었는데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도 정월 보름은 양력 3월 4일이었으나 3일과 4일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전인 2월 24일에도 예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3월 4일은 초등학생들의 방학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체험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들의 방학 중에 예비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날 짜	현 황
2006년 2월 11일-13일	약 300명 정도의 체험객들이 참여
2007년 2월 24일	벧가릿대 세우기 예비 행사로 약 200명 정도의 체험객들이 참여
2007년 3월 3일-4일	152명의 체험객들이 참여

표 3 2006년과 2007년도 벧가리 세우기 현황

‘가족벧가릿대 세우기’는 한 가족이 힘을 합쳐서 약식으로 벧가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가족 벧가릿대를 세우고 가족이나 단체의 소원을 적은 창호지로 만든 씨오쟁이(오곡주머니)를 매달아 소원을 비는 체험행사이다. 이 가족 벧가릿대 세우기는 꼭 정월 보름이 아니더라도 일정 인원 이상이 신청을 하면 언제라도 시행하며, 대개 정월 전후로 행해진다. 이러한 가족 벧가릿대는 정월보름에 세우는 원래의 벧가릿대와 함께 2월 초하루에 쓰러트려 태워진다.



그림 4 벧가릿대 세우기 놀이



그림 5 영등제를 지내는 모습

## 2) 주민 교육

‘벚가리 마을’은 조성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마을 주민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는 조사당시인 2007년 4월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며, 테마체험마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을 마을 내·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테마체험마을 간의 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다른 체험마을의 성공전략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린 지시가 아닌 농촌전통테마마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프로그램 교육들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 대학 농촌 관광과정

2007년 5월 조사당시, 태안농업기술센터를 주최로 하는 농업인 대학을 통한 체험마을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을 운영위원회와 체험행사의 실무 책임자인 노인회장은, 이 농업인 대학을 통하여 체험마을 관련 교육을 받는다. 운영위원회와 노인회장을 제외한, 프로그램 진행에는 참여하지만 위원회가 아닌 마을 주민들 모두는 이 농업인 대학을 다니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생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농업인 대학의 나이제한(65세)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회장의 경우는 마을 운영 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나이제한에 상관없이 다니고 있다.

이 농업인 대학의 교육은 2007년 3월 30일에 시작하여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총 9개월간 20회의 교육이 진행된다. 농업인의 특성상 농번기인 봄과 가을에는 방학을 한다. 자격은 관내 거주자로 현재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촌 관광농업·농산물 가공·유통 실천 농가 및 교육을 희망하는 남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교 과 내 용	강좌 및 시간 수
공통 및 교양	일반 및 농업교양분야	5강좌 10시간
	농촌관광농업(농촌자원, 마을개발 등)	11강좌 42시간
	농업인 건강관리	1강좌 1시간
	농산물 가공 및 유통	4강좌 11시간
	기타활동(입학식, 수료식, 특강 등)	2강좌 8시간
실습 및 현장교육	가공실습	2강좌 8시간
	현장실습 및 견학	2강좌 18시간
계		37강좌 98시간

표 4 농업인 대학의 주요교육과정

### (2)실버문화학교

태안문화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연령층이 높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의 해설을 돕도록 하는 화술·제스처 등의 내용이 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3)친절교육

자매결연을 맺은 삼성전기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교육이다. 진행은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교육담당자에 의해 친절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3) 기타 프로그램

### (1) 염전 체험

‘벧가리 마을’은 서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마을에 넓은 염전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염전을 논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져 현재는 염전이 3개 밖에 남지 않았다. 과거에는 갯벌에서 바로 롤러를 밀어서 그 자리에서 벌소금이라 하는 까만 흙소금을 채취하였다. 그러다가 좀 더 깨끗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깨진 향아리 조각을 타일처럼 염전 바닥에 깔기도 했고 검정색 비닐 시트를 쓰기도 하였다. 현재에는 타일바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염전은 현재와 같이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지형에 맞춘,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러한 염전의 정형화는 일제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sup>22)</sup>

이러한 염전을 이용하여 전통적 천일염 생산 방식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 염전 체험 프로그램은 천일염이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22) 제보자 손영철(남, 38세), “옛날 염전은 이런 식으로 안 돼있죠. 그냥 생긴 대로 해요, 생긴 대로 돼있죠. 지금 여기 보세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돼있죠? 이렇게 염전이 정형화하게 된 것은 바로 일제 시대 때부터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딱딱 네모나게 그 뭐냐 정형화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전에는 생긴 대로 그냥.”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사의 설명으로 전통생산방식을 관광객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체험객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무래질로 소금 모으기, 수차와 용두레·맞두레로 염전에 물 퍼 올리기 등이다. 현대의 염전에는 원래 맞두레 수차 용두레 등은 사용하지 않으나 체험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를 재현하였다.



그림 6 염전 체험을 하는 모습  
(‘벚加里 마을’ 홈페이지)

## (2) 갯벌 체험

‘벚加里 마을’은 주 수입원이기도 한 굴 양식 관련 체험을 중심으로, 갯벌과 그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갯벌체험은 마을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수단을 필요로 한다. 숙소에서 갯벌로 이동하는 수단은 ‘체험마차’라는 이름을 가진 개조된 트랙터이며, 체험 장소인 염전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을 총괄하는 해설사는 체험마차에 설치된 마이크로 관광객에게 갯벌안내나 갯벌 체험에 대한 설명을 한다. 갯벌에 관한 설명은 염전체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갯벌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구멍 동굴

‘벚加里 마을’에 인접한 바다에는 인근에도 유명한 구멍바위가 있다. 말 그대로 바위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구멍바위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sup>23)</sup>가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총알바위라고도 부르는데 이 구멍바위를 구멍동굴이라 하여 체험객들이 여기서 소원을 빌고 더불어 주위의 경치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23) 제보자 김송월(여, 78세) “...그냥 그거 총알구멍이라고 거기 가서 소원 빌구 했지.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공부 일등하게 해달라고 했지. 거기는 또 여름에 가면 굉장히 시원혀. 또 그러고 있으면 계가 기어다녀. 새댁시절에는 거기 가서 계도 잡고 조개들도 잡고 했지. 거기 갈려면 그냥 소풍가는 마냥 가서 밥 싸가지구 일허구 했지.....”

#### (4) 솥대 세우기

본래 솥대는 마을 입구에 세워 풍농(豐農)을 기원하던 신앙 형태이다. '벚가리마을'에서는 마을에 있던 솥대를 활용하여 체험객들이 직접 나무를 깎아 오리모양을 만들고 이를 소나무 장대에 꽂아 바닷가에 세우도록 하였다. 체험객들이 이 솥대를 세우면서 자신의 소원 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5) 소원의 숲

'벚가리 마을'의 뒤편에는 작은 숲이 위치하는데 이 숲 안에는 지역주민들이 예전부터 아들을 낳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거북바위가 있다. 이러한 기자신앙을 이용하여 '벚가리 마을'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시작하면서 이 숲을 '소원의 숲'이라 이름붙이고 산책로로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순전히 지역 주민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소원의 숲에 있는 나무에는 나뭇가지에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든 주머니가 걸려있다. 이 주머니는 오쟁이의 변용으로 수원지역 마을의 오쟁이 소원 빌기를 차용한 것이다.

#### (6) 오쟁이 달기

정월 대보름 전날인 1월 14일(열 나흘날) 밤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몰래 부잣집 마당의 흙을 훔쳐다가 자신의 집의 부뚜막에 발랐던 '부잣집 흙 퍼 담기' 민속을 변형하여 만든 프로그램이다. 관광객에게 두 개의 오쟁이를 만들어 그 중 한 개에는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어 벚가릿대를 세울 때 매달아 소원을 빌고 또 한 개의 오쟁이에는 흙을 담아 매다는 방식이다.

#### (7) 민박<sup>24)</sup>

마을의 숙박은 회관 근처에 신축해놓은 숙소에서도 가능하지만,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가정집의 민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마을 내 24가구가 현재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일부 임원들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집을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마을 주민들의 집을 개·보수 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펜션을 만들어 민박을 하는 집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농촌마을의 이미지 유지를 위해 화려한 이미지의 숙박업소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인 대학의 권고로 농촌주택의 기본적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관광객중의 일부는 도시형 숙소를 원하기도 한다.<sup>25)</sup>

24) 민박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민박에서 도시민과 집 주인인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사랑방 체험의 일종이라고 판단되어 여기에서 다루었다.

25) 제보자 김지순 (여, ○○세) “...화장실도 많이 고치고 집도 고치고 농업인 대학에서는 가식이 없이 그대로 보여주라

민박은 단순한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특산물로 만든 식사는 물론, 밤에는 민박을 담당하는 지역주민이 마을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농촌의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 2. ‘벚가리 마을’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효과

농촌관광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활발히 추진된 것은 역으로는 농촌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농촌을 방관했다가는 한국의 농촌사회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정도로 농촌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이에 정부의 각 기관들이 앞 다투어 농촌의 진흥과 부흥을 위해 농촌관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는 이미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농촌·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들이 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그들의 관여로 농촌관광마을이 생성될 수는 있었지만 모든 경우가 농촌의 진흥과 부흥을 맞이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지역 주민들이 농촌관광마을을 생성하는데 있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아닌 외부에서 이를 추진하거나 깊숙하게 개입할 경우는 대부분 농촌관광마을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장 많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숙박업·요식업들의 운영권 역시 외지인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급격한 상업화로 인해 그들 본래의 생업을 위협하고 파괴되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지역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다.

본고에서 사례로 살펴보고 있는 ‘벚가리 마을’ 또한 출발은 다른 농촌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들이 주체적으로 농촌관광마을로 만들려고 노력했기보다 농촌진흥청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벚가리 마을’은 그 당시 농외소득이 50만원 정도로 주로 굴 채취와 쌀농사로만 생활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형편은 좋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이장이었던 한원석 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마을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마을을 관광화 하는데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로부터 지원이나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추진하는 중심축에는 항상 지역 주민들이 있었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농촌관광마을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이나 음식은 모두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급격한 상업화를 막을 수 있었으며, 굴 양식과 농번기로 바

---

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

빨 시기에는 체험객을 받지 않는 등 지역 주민들의 본래의 생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벚가리 마을’은 농촌을 관광화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경제적 이윤 창출

관광객이 관광지를 찾아가게 되면 관광문화를 체험하고 특산물을 구입하고 먹으며,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행위는 경제적 행위와 직결되고, 곧 관광지의 경제적 이윤 창출로 이어진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농촌을 관광화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단 여기서 조건은 체험, 숙박, 음식 등은 모두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 목	2003	2004	2005	2006
방문객 수(명)	2,550	5,553	8,959	11,350
사업소득 (천원)	46,600	128,500	191,815	242,950

표 5 방문객 및 경제효과

표 5는 ‘벚가리 마을’이 2003년도 개장 이래 2006년까지의 방문객 수와 사업소득을 도표화 한 것이다. 방문객 수는 매년 30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로 2003년 체험 프로그램을 61회 실시하여 2,550명을 유치한 것에서 2006년 186회 실시하여 11,350명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업 소득 역시 첫 해 약 300%의 신장을 비롯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문객 수의 증가가 사업소득의 증가로 그대로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권의 운영권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인원(수량)	단가	금액	비고
체험비	80	5000	400,000	기본체험
숙박비	80	8000	640,000	단체숙박
식비	80	5000	1,600,000	4식
합계			2,640,000	

표 6 2007년 3월 80명 기준 체험비용 견적

표 6에서 이러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007년 3월 80명의 체험객을 기준으로 체험비용의 견적을 낸 것인데 체험비와 숙박비, 식비 모두가 전체 체험비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숙박비와 식비는 직접적으로 각 농가에 수익이 돌아가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벚가리 마을’의 숙박 형태가 각 가정에서 하는 민박이기 때문이다. 민박은 수익이 각 가정으로 직접 돌아갈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촌관광에서 각광 받고 있는 숙박형태이다. 표7에서 나타나듯 ‘벚가리 마을’에서는 24개의 농가에서 민박에 참여 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을 위해 샤워장이나 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민박 참여 가구 수(호)			민박 유형			
계	농가	비농가	샤워장 구비(호)	수세식 구비(호)	총 수용 가능 인원(명)	평균 숙박비 (원)
24	24	-	24	24	150	40,000

표 7 농가 민박 참여 농가

또한 농특산물의 상거래도 지역 주민들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표 8 서 곶을 비롯한 농특산물은 오프라인으로 팔려 나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체험관광 때 온 관광객들에 의해 팔려 나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체험객은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월실적		금월실적		누적실적	
		인원	매출액	인원	매출액	인원	매출액
체험 관광	합계						
	온라인						
	전화						
	오프라인	195명	6,895,000	357명	10,710,000	657명	19,855,000
상거래	합계						
	온라인						
	오프라인	굴 외	9,500,000	굴 외	5,000,000	굴 외	20,500,000

표 8 마을 수익모델 매출실적 2007년 3월 기준

즉 ‘벚가리 마을’은 매년 꾸준히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소득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 이는 체험관광의 운영과 관리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얻어지는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다.

## 2)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벚가리 마을’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생성되는 과정에서 객체화·상품화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큰 틀로 본다면 생업/생태/전통문화 이었다. 이 세 가지는 도시의 그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업이나 생태의 경우는 주어진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상업화로 인한 자연환경개발이나 삶의 메커니즘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사라질 염려가 없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경우 이와는 맥락이 다르다. 전통문화를 한 지역에서 꾸준히 전승하기 위해서는 전승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벚가리 마을’과 같은 농촌은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로 인해 전승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전통문화의 전승의 위기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다. 때문에 생업/생태의 경우 객체화·상품화를 진행하는 경우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맥락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 반면 전통문화를 객체화·상품화한 경우는 새롭게 재구성되거나 창출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벚가리 마을’ 역시 앞선 사례들을 살펴 본 바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새롭게 재구성되거나 창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테마인 ‘벚가릿대 세우

기'를 비롯하여, '구멍 동굴', '숫대 세우기', '소원의 숲', '오쟁이 달기' 등의 프로그램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벚가릿대 세우기'는 본래 마을 내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행해지던 세시놀이이었다.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는 절차에 비해 단순하고 약소하게 행해졌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주로 마을의 노인들만이 참가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머물게 된다. 하지만 2003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의 틀이 완전하게 변하게 된다. 관1리(현재 벚가리 마을)가 주축이 되어 '벚가릿대 세우기'를 주도적으로 전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절차가 복잡해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한다. 또한 노인들만 하는 놀이가 아닌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이를 보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 온 관광객들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보여주기 문화로 재구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멍동굴', '숫대 세우기', '소원의 숲', '오쟁이 달기' 등의 프로그램들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이다. '구멍 동굴'을 통과하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활용하여 관광코스로 재구성한 것이며, '숫대 세우기'나 '오쟁이 달기'는 소원을 비는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것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소원의 숲'은 체험마을 지정 이후 거북바위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했다기보다 새롭게 창출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염전체험은 큰 틀에서 보면 생업이라 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복원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현장을 체험하게 만든 프로그램은 전통문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창출한 관광문화는 본래의(또는 원형의) 전통문화를 훼손시킨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가 객체화하는 과정은 문화의 원형과 본질을 파악하고 추구하는 본질주의적인 입장보다 오히려 문화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구성되고 창출된 관광문화는 현대적 맥락에 맞게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되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잃어가고 있었던 문화적 정체성을 이러한 문화의 객체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벚가리 마을'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제시한 전통문화를 객체화·상품화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낸 것들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들은 외부의 사람들(특히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전통문화를 생각해보게 되고, 이를 프로그램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과거와 전통을 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즉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문화를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문제는 단지 관광객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거나, 그들의 체험과 교육에 초점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전통문화는 본질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우려하는 본질의 훼손으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확립해가는 과정은 지역 주민 스스로 체험마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주민교육을 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농업인 대학에 개설된 농촌 관광과정을 이수하거나,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화술·제스처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 실버문화학교, 그리고 친절교육까지 각 단체의 후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런 주민교육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며 ‘벚가리 마을’을 진흥시키고자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볼 수 있다.

### III. ‘벚가리 마을’에서 나타나는 농촌성의 변화

#### 1. 농촌성의 개념

‘벚가리 마을’과 같은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관광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데 있어 정기환은 “농촌의 특성을 바탕으로 작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을 중시하는 관광행위를 의미”<sup>26)</sup>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의 특성은 농촌성(rurality)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농촌성이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지역성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으로 특정한 지역에 독특한 생활양식, 산물 내지 산업, 자연, 문화, 역사, 민속 등 거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sup>27)</sup>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촌성은 농촌관광을 성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적 주제라 볼 수 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농촌관광은 농촌을 관광화 시키고자하는 지역 주민과 농촌을 체험하고 만나고자 하는 관광객이 있어야 비로소 관광이 성립될 수 있다. 이때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농촌성을 관광화 시키며, 관광객은 지역 주민들이 제공하는 농촌성을 자신들이 농촌에서 체험하고 관광하며 느끼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농촌을 찾게 된다. 이는 지역 주민은 관광객이 농촌에 요구하는 농촌성을 관광화 시켜야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듯이 농촌관광에 있어서는 관광객이 원하거나 원할 수 있는 농촌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은 관광문화를 재구성해야하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 사회 이후 변화하고 있는 농촌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그

26)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권, 2호, 2001, 141쪽.

27) 문옥표, 전제서, 140쪽.

동안 학계에서 발표되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농촌성에 대해 김광익은 “중양/서울/지배/중심/위/선진/세련/문명”에 대비되어 “외곽/지방/피지배/주변/아래/낙후/조야함/야만 혹은 자연 상태”로 보았으며<sup>28)</sup>, 같은 맥락에서 문옥표는 낙후, 빈곤, 미신, 무지, 비합리성, 지양해야 할 악으로서의 전통 등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았다.<sup>29)</sup> 근대화 과정에서의 표상된 이러한 농촌성은 현재 농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농업의 쇠퇴, 이농에 따른 인구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과소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탈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농촌에 대해 도시인들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상실한 모든 것을 보전하고 있는 곳으로 이상화되어 노스텔지어의 대상이 되며, 따뜻한 인심,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종교적인 성스러움, 정체성의 원천이 되며 선으로서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sup>30)</sup> 이러한 농촌성의 변화는 앞서 말했듯이 농촌관광의 핵심적 주제가 되고, 이는 농촌관광이 농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농촌관광을 연구하는데 있어 농촌성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즉 농촌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앞으로도 변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농촌관광을 지속하고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방법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 2. ‘벚가리 마을’을 통해 본 변화하는 농촌성의 이미지

### 1)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제공되는 농촌성의 이미지

농촌은 각 지역마다 공통적이면서 차별된 농촌성을 가지고 있다. ‘벚가리 마을’ 역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공통적이면서 차별된 농촌성을 가지고 있다. ‘벚가리 마을’ 농촌성은 앞장에서 살펴 본 지역 주민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관광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미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성된 이후에도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의 관광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홍보과정에서도 농촌성은 이미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벚가리 마을’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농촌성은 이미지화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1) 생성과정 속에 나타나는 농촌성의 이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성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성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농촌성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필자는 ‘벚가리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주테마인 ‘벚가릿대 세우기’

28) 김광익, 「지방화 시대와 인류학의 과제: ‘지방’의 생산과 그 정치적 이용」, 『한국문화인류학』 제29집 1호, 1996, 8쪽~9쪽.

29) 문옥표, 전계서, 같은 쪽.

30) 상계서, 같은 쪽.

와 생업·생태·전통적인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 바 있다. ‘벚가릿대 세우기’를 전통적인 것에 포함시킨다면 다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 속에 있는 포함된 프로그램들은 ‘벚가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생업활동, 전통문화를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창출해낸 것이다. 그리고 이에 근간이 된 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성의 이미지인 것이다.

‘벚가리 마을’은 산·바다·전답이 모두 갖추어진 생태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다른 농촌마을보다 더 다양하고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지녔으며,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 번에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즉 ‘벚가리 마을’의 주테마는 전통문화인 ‘벚가릿대 세우기’이지만 생태적인 환경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테마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테마인 ‘벚가릿대 세우기’가 연중행사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sup>31)</sup> 이런 생태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갯벌은 서해바다에만 있는데다가 자원의 보고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체험객들을 모으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또한 ‘벚가리 마을’의 생태환경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체험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갯벌에 가서 직접 설게·고동·망둥이·썩 잡기를 하고 굴 양식을 직접 보고, 굴을 까고 굽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고, 산에서 나물을 캐거나 ‘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효과까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생태적인 환경은 생업의 다양성으로 연결된다. 생업프로그램 역시 체험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는데, ‘벚가리 마을’은 주 생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겨울을 제외하고 계절별로 ‘벚가리 마을’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작물의 생산 과정에 있어 공동체 정신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체험객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작물 수확을 체험하면서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오리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쌀의 경우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생겨난 이후에 도입된 새로운 농법인데, 이와 관련하여 ‘오리농군 보내기’를 프로그램화 시키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낸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천일염 생산을 전통방식으로 복원하여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벚가릿대 세우기’를 포함한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벚가릿대 세우기’에서 나타난 이미지를 프로그램화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벚가릿대 세우기’는 기풍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세시놀이로 한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해져왔다. 농경사회에서 있어 풍농은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1) ‘가족벚가릿대 세우기’의 경우는 연중 운영하고 있지만 주테마인 ‘벚가릿대 세우기’는 “벚가리 마을의 정월 대보름 이야기”라는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었다. 이러한 ‘벚가릿대 세우기’가 ‘벚가리 마을’이라고 마을 이름을 명명했을 만큼 주테마로 선정되면서 전통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벚가릿대 세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벚가릿대 세우기’에서 나타나는 소원 혹은 희망의 이미지는 다른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소원의 숲 산책, 구멍바위, 희망 솟대 만들기, 씨오쟁이 주머니 만들기, 쥐불놀이 및 달집태우기 등은 직·간접적으로 소원 혹은 희망이라는 이미지와 관련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이 중 구멍바위의 경우 예로부터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아이를 낳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벚가릿대 세우기’와 더불어 소원 혹은 희망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들이 전통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희망 솟대 만들기, 씨오쟁이 주머니 만들기, 쥐불놀이 및 달집태우기 등은 이와 관련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원의 숲 산책은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다.

이런 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역시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원 혹은 희망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열거하면 전통음식 만들기나 밥 훑쳐 먹기 등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농촌성의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자연환경/오염되지 않은 생태계/전통적인 다양한 생업방식/공동체 정신/전통/소원 혹은 희망/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촌성을 표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2) ‘벚가리 마을’의 운영을 통해 본 농촌성의 이미지

위에서 알아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농촌성은 ‘벚가리 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정착된 이후 지속·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양태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각종 홍보 수단들이라 할 수 있다. 생성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재구성하고 창출한 농촌성의 이미지를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관광객에게 소개시켜주고, 홍보하기 위해선 보다 농촌성을 상징적이고 이미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BI(Brand Identity)이다. 이것은 ‘벚가리 마을’을 상징화 시킨 하나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벚가리 마을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벚가리 마을’의 지형적 특색인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의 어울림 속에서 따뜻한 전통 고향마을과 자연을 형상화하였으며, 하늘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벚가릿대를 세움으로서 마을의 풍요와 안

녕을 기원하는 모습을 이미지화 하였다<sup>32)</sup>고 한다. 즉, BI를 통해 다양한 자연환경과 소원 혹은 희망이 영그는 고향이라는 농촌성이 이미지를 상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BI는 주요한 홍보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벚가리 마을’ 안내책자와 홈페이지, 농특산물 등에 사용되며, 벚가리 마을의 농촌성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7 벚가리 마을 BI

또한 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 나타난 BI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글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성의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내책자의 첫 장과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는 모두

“벚가리 마을로 오세요. 내 소원이 하얀 박꽃처럼 자랍니다.”

라고 적혀있다. 이는 앞 장에서 밝힌 소원 혹은 희망이라는 ‘벚가리 마을’ 만의 농촌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글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다른 글귀들도 안내책자와 홈페이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박꽃같이 소박한 농부의 **희망**이 영글고 훈훈한 인심이 살아 있는 고향의 품속 같은 농촌마을입니다.”

“소박한 꿈이 **희망**으로 영그는 벚가리 마을의 체험거리”

“벚가리대 청솔가지에 매달린 씨오쟁이 주머니속에서 풍년농사의 염원인 오곡의 싹이 움트듯...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희망, 믿음, 행복, 사랑**이라는 이름의 싹이 움트는 마을입니다.”

32) 벚가리 마을 홈페이지 참조 (<http://byutgari.invil.org>)

한편 소원 혹은 희망뿐만 아니라 전통, 고향, 정, 인심, 체험 등의 이미지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글귀들도 많이 나타난다.

“벚가리 마을로 오세요. 독특한 **향토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벚가리 마을로 오세요. 따뜻한 **정**이 있는 마을.”

“벚가리 마을로 오세요. 벚가리 마을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벚가리 마을로 오세요. 소곤소곤 **정다운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이와 같은 글귀와 함께 ‘벚가리 마을’의 풍경이나 체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같이 실어주는데 대부분 “농촌의 평화로운 모습, 갯벌체험현장, 벚가릿대 세우기 모습, 구멍바위 등, 소원, 전통, 고향, 정, 인심, 체험 등”의 이미지를 수반할 수 있는 사진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손미자씨(여, 38세)의 제보에 따르면 하루 평균 700~800명이 접속하고 있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벚가리 마을’의 이미지 홍보 효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농특산물의 판매 역시 다양한 농촌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농특산물은 현장을 체험하는 관광객에게 직접 팔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태안육쪽마늘, 굴, 친환경 오리농법쌀, 고추, 생강, 검정콩 등을 판매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양한 자연환경(산·바다·갯벌·전답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BI를 로고로 활용하여 ‘벚가리 마을’만의 고유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즉,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다양한 자연환경/오염되지 않은 생태계/전통적인 다양한 생업방식 등의 농촌성을 농특산물 판매를 통하여 이미지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벚가리 마을’에서는 관광객의 숙식을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때문에 마을에서는 전문적인 펜션을 짓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가정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또 다른 농촌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민박이라는 숙박 형태의 장점은 사람들 간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농촌전통테마마을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광객이 도시에서 얻지 못한 농촌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벚가리 마을’의 경우 “민박집 사랑방 좌담회”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만남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만남을 통해 관광객은 고향이나 인심, 정과 같은 이미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해설사의 역할을 마을의 노인들이 하는 것도 이런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역 주민들은 ‘벚가리 마을’을 지속·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양태들을 통해 다양한 자연환경/소원 혹은 희망/오염되지 않은 생태계/고향/정/인심 등의 다양한 농촌성의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하고 상징화 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농촌성의 이미지

앞선 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여 재구성하고 새롭게 창출해 낸 농촌성의 이미지를 알아봤다. 그렇다면 반대로 관광객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나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만족해하는 농촌성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관광문화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동일 선상에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되고 유지된다. 때문에 관광객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나 만족해하는 농촌성의 이미지를 지역 주민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비교하여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위해선 관광객들의 주요 구성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의 대부분은 초등·중학교 단위의 단체 체험객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뒤로는 가족 단위의 체험객이 많으며, 앞서 설명한 자매결연 단체에서도 오곤 한다. 즉, 자발적으로 ‘벚가리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초등·중학생을 포함한 가족이나 단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홈페이지에 체험후기를 남긴 이들도 대부분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 또는 아이들 당사자, 아니면 초등·중등 인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은 ‘벚가리 마을’ 정보화 홈페이지<sup>33)</sup>에 관광객들이 남긴 체험 후기들 중 그들이 만족했던 농촌성과 관련하여 발췌한 부분들이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책에서만 보았던 정월대보름행사를 체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었고 아이보다도 저희 부부가 더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분들도 친절하셨고 넉넉하신 이장님 덕분에 훈훈한 인심을 뽐~뽐 느끼며 맛있는 귀밭이술도 마셨습니다.”(작성자 조선희, 2007.3.5 작성)*

*“나는 대보름축제에 갔었다. ...중략... 나중에도 '벚가리마을'에서 대보름 축제 가 열렸으면 좋겠다.”(작성자 김미진(초등학생), 2007.3.6 작성)*

*“3월 3~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올 가족은 태안 벚가리 마을에 갔습니다. ...중략... 저녁식사로 오곡밥과 나물 등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을 받으며 다시 한번 감동... 식사 후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를 했는데 동혁이보다 남편이 더 신나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쥐불놀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에*

33) <http://byutgari.invil.org/servlet/org/invil/commonbank/board/PgRetrieveBoardSrv> 참조.

서의 하룻밤. 동혁이와 같은 나이인 민박집 손자 세혁이와 동혁이 친구 태석이는 금방 친해져서 장기도 두고 컴퓨터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넉넉 편하게 대해 주셔서 꼭 시골 할아버지 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http://cafe.naver.com/mrskwangsung/166>에서 발췌.)

가족 단위로 올해 정월 대보름행사를 체험하고 올라 온 후기 들이다. 대부분 주테마 행사인 ‘벚가릿대 세우기’에 만족하는 모습이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한 어른들도 체험에 만족했다. 또한 민박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로부터 고향, 향수, 인심, 정 등을 느낀 것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1박 2일 '벚가리마을'을 다녀온 중학교 교사입니다. 논과 바다가 함께 펼쳐진 '벚가리마을'에서의 시간은 정말 알차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라서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어른인 저도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염전 견학과 갯벌에서의 조개잡이, 미꾸라지 잡기, 동물농장과 바닷가 산책, 그리고 인절미 만들기까지…… 학생들과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무적이고 불편한 적이 많았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따뜻하셔서 정말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 시골 외가댁의 동네 어른들과 함께 지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교육적인 설명도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작성자 예쁜샘(ID), 2007.7.22 작성)

“안녕하세요. 지난 금·토 이틀간 중학생들과 '벚가리마을'을 다녀간 교사입니다. …중략… 체험한 것만큼 아이들이 염전에 대한 것을 얻어갔으리라 봅니다. 특히 갯벌체험과 미꾸라지 잡기는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폭 빠져서 학생들은 학생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매우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갯벌을 맨발로 걸어본 것도 조개를 잡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고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또 직접 잡은 게와 조개를 먹는 것도 정말 별미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밖에 갓 만든 두부의 맛이나 동물농장 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운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따뜻한 순두부하고 갓 만든 인절미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떡을 찌는 게 보기보단 정말 어렵더군요. 이곳 마을 분들에게서 보여주신 후덕한 인심과 배려에 정말 오랜만에 아무생각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기에 바다와 농촌이 어우러진 이 마을만 한 곳이 정말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1박 2일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작성자 수학쌤(ID), 2007.7.24 작성)

이상의 두 개의 글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학생들이 단체로 뱃가리 마을을 체험한 후 인솔 교사들이 남긴 체험 후기 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고향, 향수, 인심, 정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관광객들은 지역 주민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성의 이미지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만족해하고 있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중요하게 다룬 “소원 혹은 희망”의 이미지에 대한 관광객들의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 의견에서 잘 나타난다.

“내년에도 참가 하고 싶은데 그때는 올해와 일정이 조금은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올해와는 다른 한두 가지가 들어가면 또 참가해도 재미있을 거 같아서요. 1년 후에 체험을 하면 물론 올해와는 또 다른 기분이겠지만 아이는 '이거 작년거랑 똑같네? 할 거 같아서…… 해마다 조금씩 일정이 다르게 들어가면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또 참가하지 않을까 싶네요.”(작성자 조선희, 2007.3.5 작성)

이 글에서 관광객은 획일화되고 고정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관광지를 찾고자 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뱃가리 마을’에서도 이 때문에 연중 프로그램과 계절별 프로그램, 주테마와 보조테마를 나누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뱃가리 마을’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은 주테마인 ‘뱃가릿대 세우기’가 세시놀이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의 성향이 강한 것에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족 뱃가릿대 세우기와 같은 소원 혹은 희망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곤 있지만, 주테마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계절별로 다양성을 두다 보니 주로 정월 대보름에 오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경우 획일화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기 쉽다. 또한 이 시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 오는 관광객은 주테마에서 느낄 수 있는 소원 혹은 희망의 이미지를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 바다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무더위에는 푸른 바다가 넘 좋은 놀이동산인 것 같았습니다. 아쉽다면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면 조금 더 맘 편히 더 놀 수도 있었는데… 깊은바다는 아니라지만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넷물, 강을 찾아도 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답니다. …중략… 한번도 반두라는 것을 사용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미꾸라지에 대한 습성이나 잡는 방법적인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염전체험… 조금은 의견조율이 필요했던 시간… 도착 때 까지만 해도 당연시

되던 엮전체험... 기상 때문이라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중략... 조금 더 운영의 묘와 최악의 기상상황이 아니라면 프로그램이 자연스레 소화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준비도 있었음 하는 게 참여자로서 욕심입니다. ....”(작성자 박우선, 2007.7.28 작성)

이 글에서는 ‘벚가리 마을’의 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미숙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 관광객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미숙은 자칫 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성의 이미지가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음으로 이를 위해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3) ‘벚가리 마을’을 통해 본 농촌성의 특징과 변화

‘벚가리 마을’의 지역 주민이 관광객에게 제공하려는 농촌성과 관광객이 그들에게 얻고자 하는 농촌성은 앞서 문옥표가 제시한 탈근대사회 이후 변화된 농촌성(고향/인심(정)/공동체 정신/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전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등장이 탈근대사회의 등장과 함께 한 것이기에 그 유사점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농촌관광’을 이루기 위해선 이런 공통된 농촌성 이외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벚가리 마을’의 경우는 주테마인 ‘벚가릿대 세우기’를 통해 “소원 혹은 희망”이라는 그들만의 농촌성을 만들어 냈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생태적 입지조건을 통해 산과 바다, 갯벌, 전답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벚가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농촌성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관광객이 지역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농촌성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제공하는 농촌성에 대부분 만족감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은 모두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얻는 것을 관광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벚가리 마을’의 주 고객층이 가족 단위 체험객보다 초등·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탈근대사회의 변화된 농촌성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제시된 탈근대사회의 농촌성은 근대사회를 통해 도시민들이 상실했던 모든 것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농촌과 도시를 동시에 경험했던 이농 1.5세대나 2세대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고향 등과 같은 농촌성을 다시 찾고 느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도시민들의 경제·여가 생활이 증대까지 수반되면서 농촌관광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벚가리 마을’과 같은 농촌관광마을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농 1.5세

대나 2세대들이 찾는 곳이 아닌 3세대, 4세대들이 주로 찾고 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은 농촌에 와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농촌성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도시와 다른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할아버지·아버지 세대의 고향을 느끼고, 존재 하지도 않았던 고향의 이미지를 배우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단위로 갔을 경우의 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솔자 중에도 자신들도 체험프로그램들이 신선하고 재미있었으며, 유익했다고 밝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우선적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농촌성을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이나 학생들에게 체험시키는 일환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매결연을 한 단체들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들도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단체와 마을 간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탈근대사회의 농촌성은 다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이 보전되어 이상화된 노스텔지어의 대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연과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자 교육의 장으로 농촌성은 다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성스러움과 같은 탈근대적인 농촌성은 체험이나 교육의 일환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원/희망의 이미지가 관광객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IV. 결론 - 농촌관광마을의 올바른 성립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농촌전통테마마을인 ‘벚가리 마을’의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된 관광마을의 생성과정을 추적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농촌관광마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문화 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탈근대사회 이후 도시민들의 경제·여가 생활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관광은 농촌사회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런 이유에서 수많은 농촌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경우보다 정부나 관련된 기관에서 깊숙이 관여하여 오히려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농촌관광마을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본고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정리한다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관광문화의 객체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관광마을의 이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농촌성을 문화의 객체화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다른 농촌과 차별화된 그들만의 농촌성을 관광객에게 제공해줘야 할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농촌에 가서 얻고자 하는 농촌성의 이미지를 문화의 객체화 과정에 반영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농촌에 얻고자 하는 농촌성이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촌관광마을에 대해 처음 논의가 진행될 당시의 농촌성의 이미지는 대개 이농 1.5세대나 2세대들의 도시에서 상실한 것이 있는 이상화된 노스텔지어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관광마을들의 주 관광객들은 그보다 더 어린 이농 3, 4세대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농촌에서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보단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써의 농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런 농촌성은 변화될 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이런 흐름에 도태되지 않아야만 한다.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농촌관광마을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를 통해 농촌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할 수 있는 농촌 경제의 부흥과 진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립을 이루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수백 개의 농촌관광마을이 이미 개발되어있는 현시점에서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관광마을의 성립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흔들리거나 변화하는 농촌성에 도태되어 버리면 곧 농촌관광마을이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까진 ‘벚가리 마을’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개장 이후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벚가리 마을’도 아직 개장한지 5년도 안된 관광마을이기에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벚가리 마을에도 이를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요인으로는 첫째 지역 주민들끼리의 이권 다툼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지역 주민들끼리 주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그들 사이에서 주류와 비주류는 분명 생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이권을 두고 마찰이 생긴다면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측에

서는 이권의 적절한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농촌주민의 본래의 삶을 방해하는 문제다. 그들의 본래의 생업을 위협하면서까지 농촌관광을 개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정체성과 경제적인 삶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벚가리 마을’의 경우는 농번기에는 체험객을 받지 않고, 전업화된 숙박업을 지양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농민의 삶의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인식을 꾸준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상업화와 개발의 문제이다. 도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업시설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인 농촌의 생활을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검토와 예방을 통해 지속적인 농촌관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촌관광이 지속·유지될 수 있다면 근대사회를 통해 야기된 농촌의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농에 따른 노령화, 과소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광역, 「지방화 시대와 인류학의 과제: ‘지방’의 생산과 그 정치적 이용」, 『한국문화인류학』 제29집 1호, 1996,
- 김규호, 「관광의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지역관광개발의 영향」,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 연구소, 2000.
- 김명자·이상열 「문화관광정책을 통해 본 민속의 위상」,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 남근우, 「민속의 문화재화와 관광화: ‘강릉단오제’의 포클로리즘(folklorism)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3집, 2006,
- 문옥표, 「관광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하회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3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2. 80쪽.
- 문옥표, 「한국 농촌사회의 특성과 농촌관광 개발: 일본과의 비교」, 『과학원예』 통권90호, 과학원예사, 2003.
- 배영동, 「박물관 관광의 의미와 역사·문화의 탐색적 이해」,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 이관호, 「벗가릿대고(禾竿考) -내포(內浦)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2.
- 이상현, 「민속학자의 교양여행 전통과 문화관광」,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 이창식, 『문학·공학과 민속학』, 대선, 2000.
- 임재해, 「마을민속 왜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마을민속 전승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4.
-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권, 2호, 2001
- 조정현, 「민속연행예술의 신명체험 관광」,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 표인주, 『남도민속과 축제』, 전남대학교 출판사, 2005.
- 한상일, 「지역문화요소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향」, 『민속연구』 10,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00.

『泰安郡誌』, 1995

벗가리 마을 안내책자

<http://byutgari.invil.org>

<http://byutgari.go2vil.org>

※ 제보자 명단

이름	성별/나이	주소	비고
김경환	남, 75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김극덕	여, 84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김송월	여, 78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김지순	여, 〇〇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부녀회장
손경자	여, 65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체험마을 식사 담당, 전 부녀회장
손미자	여, 38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정보센터 관리자
손복길	남, 67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손영철	남, 47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운영위원회 총무, 사무장
손인길	남, 〇〇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손인상	남, 71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2리	
손인천	남, 〇〇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손인평	남, 69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안상교	남, 〇〇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마을 운영위원회 지도자
이점례	여, 79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전금례	여, 86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정원영	남, 70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노인회장
지영흠	여, 80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최명자	여, 53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한원석	남, 〇〇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1리	운영위원회장
한유순	여, 76세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2리	